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5 Issue | Vol. 33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소비 안정으로 필리핀 경제 성장, 2분기에 반등할 수도 — AMRO — page 1-2
- 필리핀 ·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 page 2-3
- 마르코스, 아세안과 뜻 함께해: 트럼프 관세에 보복하지 말아야 — page 3
- 한국 기업들, BCDA와 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 — page 4
- FDA, 신규 신청 수수료 일시 중단 — page 4-5
- 에드사 재건 시작과 함께 ‘홀썩제’ 재도입 — page 5-7
- 수출업자들, 강한 폐소화에 우려 — page 7-8

소비 안정으로 필리핀 경제 성장, 2분기에 반등할 수도 — AMRO

May 26,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 성장, 올해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가계 소비가 개선되고,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 속에 수출업체들이 생산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어 반등할 수 있다고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ASEAN+3 거시경제연구소(AMRO)의 국가 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창(Andrew Tsang)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낮은 실업률 덕분에 2분기에도 민간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1분기에 둔화된 이후, 민간 투자가 2분기에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Mr. Tsang은 5월 22일 열린 비즈니스월드 이코노믹 포럼(BusinessWorld Economic Forum) 현장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예상보다 낮은 5.4% 성장에 그쳤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의 5.9% 성장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이며,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인 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Country Economist for the Philippines Andrew Tsang speaks at the BusinessWorld Economic Forum on May 22.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우리는 관세 정책과 1분기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필리핀의 GDP 성장률을 6.3%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과 시장 심리를 반영한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Mr. Tsang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6%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Mr. Tsang은 덧붙였다.

하지만 Mr. Tsang은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가계 소비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 소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1분기에는 국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4.7% 증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식료품 및 교통비 하락 영향으로 3월의 1.8%에서 1.4%로 둔화했습니다.

2분기에는 미국이 이른바 '상호 관세'를 유예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순수출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Mr. Tsang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17%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7월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반면, 10%의 기본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90일 유예됨에 따라) 기업들은 하반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2분기에 더 많이 생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Mr. Tsang은 설명했습니다.

Mr. Tsang은 외부의 불확실성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난해의 낮은 기준 효과(low base effect) 덕분에 수치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태풍이 주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2025년 말 수개월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일련의 태풍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Cont. page 2]

소비 안정으로 필리핀 경제 성장, 2분기에 반등할 수도 — AMRO

[Cont. from page 1]

2024년 4분기 필리핀 경제는 5.3% 성장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부진한 소비와 농업 생산 감소 속에 5.7%에 머물렀습니다.

Tsang 씨는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필리핀 경제 당국이 2025년 성장률 목표치인 6~8% 범위의 상단을 하향 조정해 보다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DBCC)는 5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올해의 목표치와 거시경제 가정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6%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는 우리 추정치상 추세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6% 목표는 유지하되, 상단은 다소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제계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장관과 예산부 아메나 F. 팡안다만 장관은 6~8% 목표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 6%의 연간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분기 동안 평균 6.2% 이상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한편,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선거 지출, 소비 증가, 고용 확대, 정부 지출 증가 등의 요인 덕분에 2분기 성장률이 6%까지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ikonomia Advisory and Research, Inc.의 이코노미스트 레이니엘 뎃 M. 에레세는 2025년 하반기에 GDP가 약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출과 경제 확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엘리 M. 레몰로나 주지사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르면 6월 19일 회의에서 25bp(베이스스 포인트) 인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Board)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정책금리를 5.5%로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한편,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의 Tsang 씨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필리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로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적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Ratings)는 미국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하향 조정하고,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변경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주로 국내 인플레이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BSP의 금리 인하 결정이나 그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라고 Tsang 씨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5/26/674641/philippine-growth-could-pick-up-in-q2-as-consumption-stabilizes-amro/>

필리핀 ·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May 26, 2025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commissioner Romeo Lumagui Jr. said the negotiating teams of the two countries conducted last week the first round of discussions of the DTA — also known as tax treaties.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과 홍콩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양국 간의 기업 신뢰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필리핀 국세청(BIR) 루마귀 주니어(Romeo Lumagui Jr.) 청장은 양국 협상단이 지난주 첫 번째 이중과세방지협정(일명 조세조약)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세조약의 주요 조항에는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조세 경감 조치, 그리고 양국 세무 당국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틀이 포함된다.

루마귀 청장은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율할 조항들을 마련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3]

필리핀 ·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Cont. from page 2]

루마귀 청장은 “이 사안들은 필리핀과 홍콩 양측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균형 있고 공정한 협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당국이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는 종종 세금 부담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필리핀은 약 4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고 있다.

DTA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체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마귀 청장에 따르면, 양측 협상단은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적 논의를 통해 남아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장려하며, 양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D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다.

2024년 말 기준, 홍콩은 필리핀의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홍콩이 총 20억 4천만 달러 규모로 필리핀의 16번째 수입 대상국이었다.

필리핀과 홍콩은 DTA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 제2차 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루마귀 청장을 비롯해 재무부의 다킬라 나파오(Dakila Napao) 차관보, 에우비밀 니나 아순시온(Euvimil Nina Asuncion) 국장, 그리고 국제청 국제조세국의 래리 바르셀로(Larry Barcelo) · 로비 바나가(Robbie Banaga) 부청장이 참여했다.

홍콩 측 협상단은 홍콩 세무국 벤자민 찬 시와이(Benjamin Chan Sze-wai) 청장이 이끌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26/2445731/philippines-hong-kong-negotiate-double-taxation-agreement>

마르코스, 아세안과 뜻 함께해: 트럼프 관세에 보복하지 말아야

May 26, 2025 | Julie M. Aurelio | Philippine Daily Inquirer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마르코스 대통령은 월요일,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개입 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아세안의 공동 대응을 이끈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번 특별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보복 조치를 피하자는 합의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신중하고 통합된 접근은 아세안이 대화와 외교,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계에 대한 의지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월, 새로운 관세 부과 일정을 90일간 유예했다. 그러나 일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필리핀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17%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다.

지난주, 필리핀 외교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미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관세 일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달, 프레데릭 고 대통령 특별보좌관(투자 및 경제 담당)은 수입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7271/marcos-agrees-with-asean-do-not-retaliate-vs-trump-tariffs>



Philippines'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attends the plenary session at the 46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on May 26, 2025. (Photo by Jam STA ROSA / AFP)

한국 기업들, BCDA와 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

May 27,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Flag of South Korea

Image by Big_Heart from Pixabay

마닐라, 필리핀 — 두 개의 한국 기업이 타를락의 뉴 클락 시티와 라 유니온의 포로 포인트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기지 전환 개발청(BCDA)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국영 기관인 BCDA는 어제 성명에서, BCDA의 사장 겸 CEO인 조슈아 벙캉과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수석 부사장 마크 토레스가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체인 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만나 포로 포인트 자유무역지대 내 산페르난도 공항 업그레이드 타당성 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로 포인트 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산페르난도 공항은 운영 능력이 제한적이며 주로 전세기와 비행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제안된 업그레이드를 통해 산페르난도 공항이 더 많은 상업 항공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페르난도 공항의 북루은 주요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넘어, 이번 제안된 업그레이드는 라 유니온과 인근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BCDA는 또한 뉴 클락 시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관련 협력을 위해 진 시스템즈 주식회사와의 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 클락 시티에서 제안된 스마트 시티 시범 프로젝트는 2025년 K-시티 네트워크 스마트 솔루션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또한 뉴 클락 시티를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미래에 대비한 대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BCDA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진 시스템즈와의 제안된 협력을 통해 BCDA는 뉴 클락 시티에 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의 장기적 적용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할 계획이다.

또한 BCDA는 뉴 클락 시티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BCDA는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벙캉 BCDA 사장은 “한국 기업들은 인프라 및 스마트 시티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받고 있어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이러한 잠재적 파트너십은 뉴 클락 시티와 포로 포인트에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최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5/27/2445985/south-korea-firms-bcda-team-infrastructure-smart-city-development>

FDA, 신규 신청 수수료 일시 중단

May 26, 2025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의료 제품에 대한 신규 등록 및 평가 수수료가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되었다는 입법자들의 지적에 따라 이 수수료의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FDA 국장 파울로 S. 테스톤은 수수료 부과 일시 중단 권고가 보건부 장관 테오도로 J. 헤르보사에게 전달되었으며, 그의 승인이 있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FDA 경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우리는 행정 명령의 시행 중단을 보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 테스톤 국장은 입법자들에게 전했다.

“권고 내용은 보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기 해제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동안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Illustration photo shows various medicine pills in their original packaging in Brussels, Belgium, Aug. 9, 2019. — REUTERS/YVES

[Cont. page 5]

FDA, 신규 신청 수수료 일시 중단

[Cont. from page 4]

FDA는 지난해 12월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그중에는 의약품 유통업체의 연간 면허료를 기존 5,000페소(초기 면허) 및 10,000페소(이후 매년)로 나뉘던 2단계 체계에서 연 8,000페소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로일로 지역구 의원이자 하원 무역산업위원회 위원장인 페르제벨 G. 비론 의원은 “FDA의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FDA 서비스 제공에 눈에 띄는 개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수수료는 업계에 여전히 부담이며, 지불하는 비용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덧붙였다.

FDA 국장 마리아 세실리아 C. 마티엔조는 약 3,000건의 허가 신청이 현재 규제 당국에 보류 중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테스톤 국장은 FDA 허가 신청 처리 지연이 “의약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처리 지연이 시장의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규제 기관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제약산업협회(PCPI)는 국산 의약품 생산을 장려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PCPI는 비즈니스월드가 입수한 하원 무역산업위원회 제출 문서에서 “우리는 국내에서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비해 규제상 불리함 등 경쟁과 성장에 장애가 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을 신속 처리하는 ‘익스프레스 레인’ 도입을 요구했다.

PCPI는 원자재와 의약품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와 같은 국내 제약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제약업체에 부여된 우대 정책을 예로 들며, 국내 제약업체에 대한 우선적 규제 관행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26/674920/fda-suspends-new-application-fees/>

에드사 재건 시작과 함께 ‘홀짝제’ 재도입

May 27, 2025 | Dexter Cabalza, Tyrone Jasper C. Piad - @inquirerdotnet

마닐라, 필리핀 —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년간의 ‘에드사 재건(Edsa Rebuild)’ 프로젝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시행했던 ‘홀짝제(odd-even scheme)’를 부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인 에드사(EDSA)의 차량 수를 대폭 줄이고, 대체 경로로 활용될 스카이웨이 3단계 구간에서는 통행료 면제(toll holiday)도 실시한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MMDA) 위원장 돈 아르테스(Don Artes)는 에드사 재건 작업이 시작되면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대체 경로로 지정된 이면 도로에도 대규모 교통 혼잡(‘카마게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4시간 홀짝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홀짝제에 따르면,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에드사를 이용할 수 없고, 짝수(2, 4, 6, 8, 0) 차량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에드사 운행이 금지된다. 일요일에는 홀짝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Cont. page 6]



PASS THROUGH SOON Once the rebuilding of Edsa starts next month, San Miguel Corp. will allow motorists to use the Skyway Stage 3, from Buendia in Makati City to Balintawak in Quezon City, as an alternative toll-free route. —Lyn Rillon

에드사 재건 시작과 함께 ‘홀짝제’ 재도입

[Cont. from page 5]

이 정책은 6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시행되며, 위반 차량은 단속되어 위반 통지서를 받지만 벌금이나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조치들

아르테스에 따르면, MMDA는 곧 에드사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경로들에서 정기적인 정비 작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사 도로의 차량 수를 더 줄이기 위해, 아르테스는 지방 버스, 트럭, 그리고 기타 대형 차량들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시적으로 에드사 진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드사 도로의 자전거 전용 차선 분리대는 철거되고, 전용 오토바이 차선이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빈스 디존 교통부 장관은 대중이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에드사 버스 전용 차로에 100대의 추가 버스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존 장관은 에드사 재철 공사 중에도 에드사 버스 전용 차로가 계속 운영될 것임을 확신했다.

또한, 수도권 전철 3호선(MRT 3)의 열차 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열차와 4량 편성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MRT 3 모든 역에 설치된 X-레이 스캐너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철거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 장관 마누엘 보노안에 따르면 에드사 재건 공사는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준비 작업은 6월 13일 밤부터 시작된다.

조정 사항

1996년 4월 처음 도입된 에드사 ‘홀짝제’는 23.8km 구간에서 24시간 시행되며, 메트로 마닐라의 다른 도로에서는 ‘번호판 일수제(번호코딩 제도)’가 “윈도우 시간”을 두고(마카티 시 도로 제외)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아르테스는 “홀짝제 시행으로 에드사 도로 차량 수가 4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하루 평균 437,873대의 차량이 에드사를 통과하는데 이는 수용 가능 차량 수인 250,000대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아르테스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에드사 도로의 통행 속도는 20% 감소하고, 특히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MMDA는 이후 홀짝제 시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윈도우 기간’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마카티 시의 부엔디아에서 케손 시의 발린타웁까지 이어지는 스카이웨이 3단계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차량이 우회할 때에 한해 7월 또는 8월경 통행료 면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디존 장관이 밝혔다.

아르테스 위원장은 스카이웨이 3단계가 2020년 12월 29일 개통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무료로 운영했을 때, 에드사 도로의 차량 수가 최대 14%까지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스카이웨이 3단계 무료 사용과 홀짝제가 함께 시행되면, 2년간 진행되는 에드사 도로 재철 공사 기간 동안 통행 시간이 개선될 것이라고 아르테스 위원장은 말했다.

교통부(DOTR)와 통행료 규제 위원회는 스카이웨이 운영사인 산미구엘(San Miguel Corp.)의 예상 수익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7]

에드사 재건 시작과 함께 ‘홀짝제’ 재도입

[Cont. from page 6]

작업 범위

공사 완료를 신속하게 하고 에드사 도로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공사는 하루 24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리 작업은 "구간별로, 한 차선씩" 진행되며, 가장 안쪽 차선부터 시작된다.

보노안 공공사업부 장관은 “에드사 재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포장 도로를 교체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에드사 포장을 파내고 더 내구성 있는 새로운 포장으로 교체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혼합물에 최신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 콘크리트 위에 두꺼운 아스팔트 마감층을 덧대어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하도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with a report from Inquirer Research*

Source: <https://newsinfo.inquirer.net/2063722/odd-even-scheme-back-as-edsa-rebuild-starts>

수출업자들, 강한 페소화에 우려

May 26,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수출업체들은 페소 환율 상승 속도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적절하고 균형 잡힌 환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회(PHILEXPORT) 회장 세르지오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는 업계가 “조용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로 도출된 합의를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가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추천할 환율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페소 강세가 많은 필리피노들에게도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해외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BSP)은 환율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적어도 해외 근로자(OFWs)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소는 월요일 달러 대비 55.42페소에 마감했으며, 금요일에는 55.25페소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페소는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57.845페소에서 4.38% 절상되었습니다.

그는 페소 55.20을 “강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페소는 4월 30일 처음으로 56페소 수준을 넘어 55.840페소에 마감했습니다.

“많은 수출업체에게는 이미 강세입니다. (적정 수준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제 전반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리엑스포트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필리핀 개발계획(PDP)이 설정한 2025년 수출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필리핀 수출개발계획(PEDP)이 제시한 더 야심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PDP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1,134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PEDP는 1,636억 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에게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필리핀 제품에 17%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이 관세는 유예되어 현재 대부분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 회장은 웨어러블, 가구, 농업 산업이 이러한 관세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8]

수출업자들, 강한 페소화에 우려

[Cont. from page 7]

“4월 2일 미국의 관세 발표 이전부터, 우리 업계는 이미 약 5,850개의 관세 품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필리핀 웨어러블 수출업체 연합회 (CWEPhilIs) 전무 이사 테레시타 조크손-아곤실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우대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상호 관세가 없더라도 미국으로의 의류 수출은 이미 17~32%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17%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아세안 동료국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재단 (SEIPI) 대외 업무 부문 부책임자인 크리스티안 데이브 바엘은 상호 관세의 영향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는 2% 성장하여 39억 6천만 달러가 되었으며, 이 중 15.4%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가치 면에서의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을 때 우리 회원사들로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5/26/674917/exporters-worried-about-strong-peso/>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